

지역 소식 통

제1회 고창군 친환경 쌀의 날 17일 개최

고창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용태)가 오는 17일 오전 11시 고수면 고수문화복합센터에서 '제1회 고창군 친환경쌀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유네스코 인정 세계의 보물 7개를 보유한 고창의 건강 한 토양과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공식 기념식을 시작으로 친환경쌀 떡케이크 절단식, 불우이웃을 위한 친환경쌀 기탁식이 진행된다. 또한 오찬 후에는 축하행사과 함께 경품추첨,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고창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생산자에게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사람 중심 · 안전 우선' 도로유지관리 박차

부안군이 군민의 안전한 통행과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봄철 도로 정비를 이달 말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정비는 겨울철 강설 및 동결 · 융해 반복으로 인해 발생한 노면 파손, 포트홀 배수 불량 도로변 적치물 등을 집중 점검 · 보수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도로표지판 등의 기능도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노후화된 노면의 기능유지를 위해 교통량이 많은 부안읍 주요 도로 및 군도 2호선(출포면), 군도 5호선(동진면 · 계화면), 군도 19호선(부안읍)의 2개 노선 재포장과 도로 노면표시가 퇴색한 구간에 대한 차선도색 등 총 16억원의 예산으로 투입해 도로 안전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맨홀 정비, 배수로 준설 등 배수 체계 개선 작업을 병행해 시행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고병원성 AI 발생 '제로'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선제적 예방대책... 가금농가 적극 방역수칙 동참 일조

매년 겨울철 반복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 겨울에는 정읍시에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가금농가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현재까지 지역 내에 고병원성 AI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지역 축산관계자들과 농가들의 걱정을 덜었다. 이번 성과는 그동안의 가축방역 정책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고 철저한 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덕분으로 분석된다. 특히 가금농가들의 적극적인 방역 수칙 준수와 AI 발생 차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실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처음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

해 농장 11곳에서 피해를 봤다. 이는 전년 대비 7곳이 감소한 수치로, 살처분된 가금류 역시 전년 239만 마리에서 올해는 179만 마리로 80만 마리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 뒤에는 체계적인 방역 관리 시스템이 있었다. 시는 오리농가 동절기 사육제한을 비롯해 종오리농장 방역전담관 운영, 거점소독시설 확대 운영, 철새 도래지 출입 통제와 집중 소독 실시 등 현장 중심의 방역 활동을 펼쳤다. 또한 생산자단체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야생조수류 차단을 위한 농장 차단방역시설 설치와 환경이 취약한 오리농가에 대한 면역증강제와 동절기 난방비, 소독약품 지원 등 세부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 2월 7일 군산 토종닭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을 때는 전통신장에 서 살아있는 닭과 오리 500여마리를 5일간 전면 금지하고 일제 검사와 집중소독을 실시해 바이러스의 지역 내 확산을 조기에 막는 성과도 이뤘다. 정읍은 정읍천과 고부천, 원평천, 만경강 등 철새도래지가 많아 AI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철새 도래지 예찰과 통제를 한층 강화했으며, 육용오리와 같은 고위험농가를 집중 관리하는 등 예방 중심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한 점도 주요했다. 또 야생조류의 초기 서식지와 항원검출 지역을 신속하게 파악해 방역과 예찰 활동을 강화한 점 역시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이 14일 오전 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1700여명의 양민들을 기리기 위해 공음면 선산마을 위령탑 앞에서 6·25 양민희생자 합동위령제를 봉행했다.

'6·25 양민희생자 합동위령제'

고창군, 1700여명 기리기 위해 선산마을 위령탑앞서 봉행

고창군이 14일 오전 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1700여명의 양민들을 기리기 위해 공음면 선산마을 위령탑 앞에서 6·25 양민희생자 합동위령제를 봉행했다. 전북도회의의 6·25 양민학살진상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창에서는 군경에 의해 362명, 좌익세력 및 아군에 의해 128명 등 1700여 명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7개 지역에서 무참히 학살당한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숨겨진 진실과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고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동시에 이념 대립과 혼란 속에서 무고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6·25 양민희생자 위령탑을 2007년 4월5일 건립했다. 합동위령제는 6·25 양민희생자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혼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제례를 시작으로 현화 · 분향 · 추념사 · 추도사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의 역사 속에서 억울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그동안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겪어온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유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국회 방문 국가예산 등 현안 건의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현안 사업 반영 · 국가예산 확보 선제적 대응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11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하며 국가예산 확보 등 핵심사업 반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날 권익현 군수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김윤덕 사무총장, 안규백 국회의원 등을 만나 지역 핵심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을 방문해 새만금 일원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연계한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민주당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어 안호영 위원장을 만나 탄소중립 체질관 건립 사업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김윤덕 사무총장과 안규백 의원을 잇따라 방문해



부안 백산성지 및 세계시민혁명 전당 건립 등 군정 주요 현안 사업을 건의했다. 권익현 군수는 "국회 및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특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탄소중립 체질관 건립을 통해 부안이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동계 조사료 현황 조사 본격 실시... 농가 소득 안정 기대

정읍시가 2025년 동계 조사료 계약재배지에 대한 파종 · 생육 현황 조사를 오는 25일까지 실시하며 본격적인 축산농가 지원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기준 동계 6045ha, 하계 1122ha를 포함한 총 7167ha의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보해 고품질의 조사료를 꾸준히 생산해왔다. 이를 축산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사료비 절감과 생산단가 인하에 기여하며, 농가 경영 안

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료 가격 상승과 수입 개방 등으로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철저히 수행해 동계 조사료의 실제 재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축산업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6월 13일까지 61일간 집중안전점검 실시

정읍시가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간 주요 시설물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에 나서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범국가적 안전사고 예방 활동으로, 시는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노후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교량, 문화 · 체육시설, 재난취약시설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공시설 전반이다. 특히 시는 각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유지관리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재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기, 소방, 가스, 토목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합동 점검단

이 투입된다. 전문성을 갖춘 점검단은 현장에서 시설물의 결함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안전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수와 보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불어 점검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 제보를 적극 장려해 자율적인 안전문화 확산에도 힘을 쏟는다. 시는 모든 점검과 후속 조치를 행정에만 맡기지 않고 시민 참여형 시스템을 강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집중안전점검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라며 "철저한 점검과 후속 조치를 통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정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